

우리도 부처님 같이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사월이라 초파일 진여법신의 몸으로 사바에 오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산에도 들에도 꽃피고 새 우네. 만 생명이 환희하니 청정자성의 부처님 아닌 것이 없네 “하늘과 땅위에 오직 이 생명이 위대하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모두 편안케 하리라”

인연이 소중하신 불자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의 원용따라 참생명을 이끌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중생이 어리석어 성불할줄을 모르고 있기에 깨달음의 모습을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간의 몸받기 어렵고 그 몸이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려운데 이 생명 다함께 부처님 말씀 듣고 받아가지며 부처님 우리러 여래의 진실법을 깨달아 갑시다.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고 진여법신의 세계에서 참생명의 자아를 모든 사람들과 알게 합니다.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탐내는 마음으로 가려진 자아를 찾게 하시고 화 잘내는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없는 자비심을 갖게 하시고 어리석은 마음, 무지의 마음 벗어나 해탈의 기쁨으로 복되게 하여지이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은 돌이 아닐세.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중생의 이 몸이 청정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깨달읍시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여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 밝혀 광명 세계 건설합시다. 나무마하반야마라밀

소외된 이웃 돌아봐

불교총지중 증령 효강 정사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일본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쳐 온 인간들이 막상 자연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사회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욕심 가는대로 자신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사회 지도층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스스로를 해치고 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갑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음미나반매홀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사)대한불교원용종 증정 일공 스님



만법(萬法)의 참 모습은 둥근 햇빛보다 더 밝고 푸른 허공보다 더 깨끗하여 항상 때 묻지 않습니다.

악하다, 천하다함은 겉보기 뿐 그 참모습은 거룩한 부처님과 닮아서 없어서 일체가 장엄하여 일체가 송고합니다.

그러므로 천하게 보이는 파리, 개미나 악하게 날뛰는 이리, 호랑이를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무리인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인, 강도 등 극악 죄인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무리인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서로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삼라만상이 달라도 진리는 하나

(사)대한불교무량종 증정 혜안 스님



삼라만상이 각기 달라도 진리는 하나일세. 무시무중으로 흐르는 세월에 오로지 혼자자이다.

전생 업연의 끈에 끌려 살다가 죽어지면, 내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태어날지 지금도 기약없는 인생사라 산마루에 뜬구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인생 허망된 욕망과 아집 버리고 이웃과 정 나누고 베풀면서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탄신일을 맞아 우리 모두 축복의 등불 밝히고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성을 찾으면서 이생을 멋있게 살아갑시다.



참불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대한불교삼론종 증정 해공 스님



마음은 질곡같은 어둠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건만 그 어둠을 드러내고 부처님이 오신단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 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천만금 무거운 발걸음, 가슴을 헤집는 슬픔과 안쓰러움을 가득 품어 안으시고, 밝은 빛이 되어 오늘도 오신단다. 행여 좀 덜 아프고, 행여 좀 덜 고통스럽고, 행여 좀 더 행복해 지지 않을까하는 바램을 가지시고 저리도 힘든 걸음을 하고 계시 단다.

이제 우리 모두 참 불자가 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큰마음을 가진 큰사람이 되어 오늘 또다시 이 땅을 찾으시는 부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 해야겠다.

자비행으로 불법베를자

대한불교총화종 증정 동광 스님



세존출세(世尊出世) 천지명(天地明) 일체중생(一切衆生) 개환희(皆歡喜) 일체중생(一切衆生) 자비행(慈悲行) 불법홍포(佛法弘布) 전력경(全力傾) 자기수행(自己修行) 막대위(莫怠爲) 자각자타(自覺自他) 필유성(必有成)

세존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니 천지가 밝아도. 모든 중생이 기뻐하도다. 모든 중생은 자비행으로서 불법을 널리 베푸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자기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반드시 이루어라.

삶을 청정하게 장엄하자

대한불교조동종 증정 지명 스님



학몽연한수합추원(鶴夢煙寒水舍秋遠) 호검공공상흥뇌동(浩檢空空相興雷同) 학은 저녁노을 초기를 찬바람에 눈을 감아 졸고 있고 물은 가을에 밀고 가까워 곳 모두 흥색을 머금었도다. 무한한 시간 속에 보이는 모두가 허무하고 공하여서 삼라만상 만물이 서로 만났다가 흩어져 공으로 돌아간다.

부처님오신날 사바에 나투신 크나큰 뜻을 따르며 평화와 화합 그리고, 생명존중과 자기 승리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불자로 돌아가 참 보살로써 그 삶을 청정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장엄하여 봅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이웃 사랑이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법성종 증정 덕암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구부리 하화중생’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자식과 자손을 보살피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여 사랑하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나눔의 정신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려운 이웃을 사랑과 봉사과 평등을 우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참 뜻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대한불교본조계종 증정 회암 스님



모든 재앙 입에서 온다.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말라.

맹렬한 불이 집을 태워 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불길이 되어 내 몸 태운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대자비심으로 낮은 곳 살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자비심을 내자, 모두가 자기만의 주장 때문에 소리없는 동업중생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낮은 곳을 찾아 살피주는 대자비심에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현실적인 중생의 고통이요, 어두움을 두려워 할 줄 알아 빛의 소중함을 알고 불자 들은 대각(大覺)하여 부처님의 화합정신으로 동체대비 사상을 불자 모두가 실행하여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장이 됩시다.

정토(淨土) 향해 갑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증정 월호 스님



법계(法界)의 한점 티끌, 그 속에 너다나 다 끝없이 투쟁하며 만고불멸(萬古不滅)의 성(城)을 쌓고자 무명검(無明劍)을 난무(亂舞)하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사, 형상(形相) 없는 부처님 사바에 그 몸 나투시어 폭포수와 같은 광장설(廣長舌)로 ‘이제 다시는 삼계(三界)에 헤매이지 말고 생사(生死)없는 극락 본래의 고향 찾아가자’ 그 이끌어 주셨으니, 이 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더 한층 맑게해 ‘나무야미타불’, 육자염불(六字念佛)로 정토(淨土) 향해 갑시다.

탐욕 끊어야 생사 벗어나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생사욕탐(生死欲脫) 탐욕선단(貪慾先斷) 금제애갈(及諸愛渴) 진여악성(眞如惡聲) 생사를 시원히 벗어나려면 탐욕을 먼저 끊어야 하며 사랑에 목매임도 벗어나야 벼락 치는 모진소리 그 귀에 들릴까?

시심마?

대원불교조계종 증정 청봉 스님



시심마(是甚麼)?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 이라,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다 있다 했으니, 행주좌와 여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시에 ‘시심마(是甚麼)?’ 즉, ‘이뭇꼬?’ 화두(話頭)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修行)해야 한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이뭇꼬?’를 곱씹어 참구(參究)하다 보면 본래면목(本來面目), 참나(眞我)를 깨달아 구경(究竟)에는 생사(生死)를 해탈(解脫)하게 될 것이다.

이타행, 또 이타행

(재)한국불교원광원 이사장 선진 스님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이십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날에 연등 밝혀 봉축합시다. 한량없는 자비의 대광명이 충만한 오늘, 동체대비의 실천으로 나눔과 이타행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부처님 세계인 것입니다. 불교란 가르침이 아니며 진리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지어다.

(사)대한불교해동종 증정 혜봉 스님



세간의 명성과 이익에서 벗어나 일체중생을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케 하고 모든 반목과 대립을 초월한 화합의 큰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지어다.

백년염불 외위도 남음 없다.

(사)대승불교조계종 증정 은파 스님



해동일광석굴만(海東日光石窟漫) 불보살이미소안(佛菩薩而微笑顏) 태풍강설불비동(颱風降雪佛非動) 백년염불외무송(百年念佛餘無誦)

동해의 일광이 석굴에 가득하니 부처님과 보살의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태풍과 눈이 내려도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백년 염불을 외위도 남음이 없다.

하심으로 자리아타행을

(사)대한불교금강종 증정 무학 스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은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된 삶을 찾아 주시고 또한, 원용무애(圓融無礙)한 화합의 세계를 보여 주시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80평생을 노상(路上)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며 전법하셨습니다.

모든 불자와 인류는 부처님의 그런 하심(下心)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익혀서 자리아타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베품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복덕과 지혜를 지니어 다 함께 성불합시다.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

(사)대승불교본원종 증정 대화 스님



어두운 세상 밝히고자, 지혜의 밝은 빛으로 오시고 고해중생 건지고자 자비의 큰 원력으로 오셨으니 온 세상이 밝고 평화로워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요, 처처가 극락정토입니다.

우리 모두 등불 밝혀 마음껏 봉축하고 목청껏 찬양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배워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스님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찬탄하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배워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쳐도 좋으리라.

잘못한 일은 무엇이나 피눈물로 참회하라. 항상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공경하라. 불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생활할 지어다.

용화의 중도로 분별심을 버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증정 심곡 스님



신묘한 미소를 머금은 행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삼계가 두루 열리고 작약과 수련이 활짝 핀 앞뜰에 벌과 나비가 춤추고 저 건너 산에서는 꼬꼬리 소리 요란한데 어찌 풍란 속에 피는 공화를 혼자서 잡으려 애를 씀니까. 더불어 재미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 갑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용화의 중도를 바로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계율 청정이 평안심 이끌어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해인 스님



계율청정(戒律淸淨)은 고집멸도(苦集滅道)요.

계율수행자(戒律修行者)는 영명지각(靈明知覺)이라.

일월성신 산하대지(日月星辰 山河大地)가 소소영영(昭昭靈靈)하도다.

지계사(持戒者 人天師)요 대도청정수행(大道淸淨修行)이라.

계율을 지키는자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는 고집멸도다.

계율청정자는 뚜렷하고도 환하게 느껴 깨달음을 아느니라.

우주 가운데 널려있는 산과 강의 이치 이 모두를 알아 뚜렷하고 신령스럽도다.

계는 깨달음을 인도하는 스승이요. 대도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자라. 계율이 청정하면 서울 장안도 고요한 산중(山中)과 같고 계율이 청정하지 못하면 산중(山中)에 있어도 서울 장안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니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두 귀에 걸려서 평안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을 피할려고 애쓰지 말고,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여야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일체중생 성불때까지 정진합시다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이 세상천지 만물이 모두가 부처라고 큰 소리로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에 부처님은 오셨습시다.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보고 공경 에 배하는 극락정도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고 조용히 가르치려 오신 부처님을 기록한 공경심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중생계에 아픈 일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말끔히 씻어내라고 좋은 인연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모두가 감사의 절을 올립시다.

축복받는 일체중생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모두가 옹양정진 합시다.



엷힌 원결 풀고 불연따라 일심정진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일진법계(一眞法界)

일무물(一無物)

무일물중(無一物中)

무진연(無盡緣)

원득황금(願得黃金)

무진물(無盡物)

중중불사(重重佛事)

화인전(化人天)

참다운 법계엔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함이 없는 인연이 녹아있네 원컨대 다함이 없는 황금재보를 얻어 중하고 중한 불사로 사바세계를 교화하라.

세상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유한하여 영원한 것이 전무하지만 오로지 불법 만이 홀로 존귀하여 세세생생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리니.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자 엷히고 설친 원결을 풀고 불연을 따라 사바세계를 교화하여 불국토 건설에 일심정진(一心淸進)할지어다.



부처님 마음으로 중생 꽃 피워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중생들의 소리 다 들으시는 사생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아픈 가슴 다 어루만져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한 수승한 삶을 이어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불제자들의 마음속에 화광동진 하시어.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늘진 곳 중생들의 참다운 벗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 받는 계기가 되어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중생들의 꽃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탄신의 참 뜻을 깨달아 찬탄의 합성과 땀방울이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곳에 머물게 하소서!

자애로 마음을 닦아

화쟁평화중양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자애를 바탕으로 마음을 닦고 길들이며 실천하면 본래 각자의 부처님 생명은 빛을 발해 진공묘약을 얻고 해탈을 이룰 것이다.

내 마음 속 부처님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스님



부처님 세상 우리들 세상 2555년 꽃피고 새우니 만법이 춤을 추는구나 푸른 하늘 허공이 재주를 부리니 오고가는 뜬 구름은 자취없이 오고가네.

세상만사 하늘속 구름처럼 청풍에 구름 흩어지고 내 마음속 부처님은 눈앞에 완연하네 나룻배 하나 바람에 띄어 바다 속 깊이 날려 보내니 부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 2555년 4월 8일 외우고 계시네 부처님께서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데 정말로 내 마음 속에 걱정이 되는구나.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건강하소서.

십악 참회 십선 자비행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자등명 자귀의(自歸依 自歸依)
법등명 법귀의(法燈明 法歸依)
제행무상 불방일정진(諸行無常 不放逸淸進)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평등을 선포하시고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불자이기에 누구나 부지런히 정진하면 성불합니다. 미래의 부처이니 친구의로 지은 십악을 참회하고 매순간 깨어 미륵보살의 십선 자비행으로 모두 부처가 됩시다. 자신을 맑히고 밝히어 세상을 이롭고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부처가 돌이 아니다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스님



부처님이 돌이 아닙니다. 불법도 돌이 아닙니다. 집단도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항간에 보면 부처님도 따로요? 불법도 따로요. 집단도 따로인 것처럼 각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진정고 부처님은 일불입니다. 불법도 하나입니다.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쟁건고 시기에는 각자 마음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바로 알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부처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다.

무진불법을 깨달아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능인 스님



내외개해탈(內外皆解脫) 신심실행등(身心悉平等)

영겁주정념(永劫住正念) 무착무소계(無著無所繫)

안과 밖이 모두 해탈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평등하고 영겁도록 정념에 머무르면 집착도 없고 염매임도 없으리라.

만겁(萬劫)에 독시간곤(獨是乾坤)하고 요요명명(了了明明)하며 황황력력(晃晃赫赫)하고 원통원명(圓通圓明)한 경지와 무진(無盡)의 불가설제법(不可說諸法)을 성취해서 마음대로 수용하게 되노라

연화심 꽃비 속에 일만가 젖어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천축오색운(天竺五色雲)
하작육주우(下作六州雨)
낙진연화심(落盡蓮花心)
삼세일만호(三世一萬戶)

천축국 오색구름 육대주 비로 내려 연화심 꽃비 속에 시방삼세 일만가 젖는다.

자비의 마음을 나누자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 조도와 함께 받들어 봉축합니다.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밝고 청정한 마음, 이웃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눕시다.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보고 본래의 청정을 찾으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알고 서로 미움을 버리고 자비로서 함께 합시다. 불자님의 가정에 화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흥인 스님



부처님오신날은 마음에 등불이며 수행갈이 멀어야 합니다.

마음이 형식이 들어 있어서는 불통과 같고 향시 상구보리라고 하화중생하며 자연의 이치와 같이 향시 부처님 마음으로 수행하고 사람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모두 성불하십시오.

탐욕과 분노 부질없어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



부처님께서서는 우리 중생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아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묘법을 모르고 미움과 원망으로 서로를 탓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깨달아 하루라도 참된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헤아려 참 불자가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마음공부의 수행자 되자

대한불교선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암 스님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받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범구경>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뜻 생명의 불성(佛性)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여행자가 나아가길입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생사의 밤길'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합시다.

모든 이를 위해 실상의 등불을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스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하신 부처님 오심이며 불생불멸의 삼세인과법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이끌려 죄업을 짓고 갖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일심참회로 정진합니다.

육지전생사(憶知前生事) 금생수자시(今生受自是)
육지매래인(憶知未來因) 금생작등시(今生作燈是)
전생 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는 것이요. 내생 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등불사와 같이 지는 것이요.

분별 망상 없는 참불자 되길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큰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 높이 들고 마음껏 봉축하고 큰 뜻 받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 망상이 없어질 때 진정한 참 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기의 불성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합시다.

일원상(一圓相)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스님



역대 조사로부터 전해 받은 일원상(一圓相)을 중생들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태초에 처음 한마디였으며 맑고 청정한 법계요, 만물의 근본이라 천하의 어머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허공에 서린 일원상(一圓相) 나도 몰랐고 그대를 또한 몰랐으니 부처가 어찌 그 도리를 알까? 그대들은 한 점 티끌로 청정한 법계를 더럽히지 마라.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자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흥 스님



수미산 정상에 상서로운 꽃이 봉우리를 터트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면목이라. 인연실상(因緣實狀)으로 우주를 관하는 체로 삼으니 사제팔정(四諦八定)으로 중생구제에 귀용을 세우노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연법으로 우주의 실상을 관하고 사성제(四聖諦) 덕 높은 초전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법은 세상에 이치를 있는 글대로 본 것 뿐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혼자서 존재 할 수는 없습니다.

분수에 맞는 삶, 그것이 행복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스님



중생들은 해체되어 없어질 사대(地水火風)와 삼독심이 가득한 망념을 참 나로 착각하는 그 어둠 때문에 삼계의 윤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허망한 오운을 영원한 나로 인식하는 병 때문입니다. 또한 삼계는 본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이 그 진실상이거늘 무지가 깊어 치독(癡毒)이 심한 관계로 망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삼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셨으며, 일생을 두고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명확히 알아 분수에 맞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승 스님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고통을 덜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며 큰 스승이셨습니다.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개개의 사물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물길을 보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전체로 전체가 하나'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